

## 동아시아 불교에 있어서 원효의 정토관의 특색

權 坦 俊(금강대학교)

필자가 발표한 글은 필자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발표주제에 관한 정식논문이 아니고 원효의 정토관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요약문이다. 요약문이 강의노트를 연상하게 될 정도로 그 내용설명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논평문을 쓰기가 결코 쉽지 않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짧은 발표시간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동아시아 여러나라의 대표적인 정토사상가들의 정토관에 대한 언급이 없이 본 논문의 결론적인 부분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발표주제를 충실히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도 된다. 또한 많은 전거 인용문을 번역하지 않고 모두 한문 원문 그대로 싣고 있는 것은 필자의 글을 이해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필자의 생각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용문을 번역하여 싣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필자는 원효의 근본사상이 和靜思想이라고 보고, 이 화쟁사상은 緣起的인 思考에서 비롯된 不二思想에 입각한 논법이라 하고 있다. 不二思想은 이질적이고 상대적

인 두 개념은 緣起的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는 것을 알아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동일선상에서 생각함으로써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止揚하는 입장이다. 필자는 이러한 연기적인 사고가 원효의 모든 저술에 불이사상으로서 그 위력을 발휘하고 나아가 불교를 회통시키는 화쟁사상의 근원이 되었다고 논하고 있다.

필자는 원효의 정토사상 또한 화쟁사상의 근원이 된 不二論法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연기적인 사고가 철저하게 배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연기적인 사고에 의하여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이해한 원효의 정토관에는 여러 정토사상가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몇 가지의 특색이 보인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첫째, 극락세계에 관한 관점은 不二淨土의 입장이다. 둘째, 극락세계에 가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발보리심에 있다. 셋째,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자신이 하근기임을 자각하여야 한다.

필자는 원효의 정토사상의 특색을 이와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하고, 이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을 해 나아가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체계로 되어 있는 발표문은 논자가 일관성있게 전개되어 원효의 정토관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짧은 요약 발표문을

통해서 원효의 정토관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 필자의 학문적 능력과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하며서 몇 가지 질의 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필자는 원효에서는 여러 정토사상가들에서 볼 수 있는 他方淨土나 唯心淨土와 같은 개념은 찾아볼 수 가 없고 오직 不二淨土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자는 唯心淨土를 ‘穢土에 살면서 마음을 바꾸면 淨土가 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唯心淨土의 의미를 과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는 마치 불교의 唯心思想을 ‘돌덩어리를 금덩어리로 생각하면 돌덩어리도 금덩어리가 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唯心思想을 이해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2. 필자는 원효의 저술에서는 중생이 모두 발보리심으로써 왕생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발보리심에는 대승·소승의 구분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급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보다 명확한 설명이 곁들여져야 하리라고 본다.

3. 극락에 왕생하는 三輩중에서 下輩의 往生行을 不定性人의 隨事發心(有退轉發心)과 菩薩種性人의 順現發心

(無退轉發心)으로 구분하고, 이 두 가지의 발심은 四弘誓願을 발하는 것이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발심이 어떻게 해서 모두 사홍서원과 관련되는 것일까?

4.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念佛修行이 말하여 지고 있는데, 염불수행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下根機임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용수보살이 “易行道는 겁약한 下劣人을 위한 것이지 확고하게 뜻이 서 있는 大人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염불은 아미타불의 他力救濟를 믿고 행하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자신이 하근기임을 자각한 사람은 자신이 중생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기 때문에 하근기의 사람이 上品의 극락세계에 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自力救濟의 성격이 강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입장은 과연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